

LG화학 · 한화, 여수 인구증가 감사패

LG화학(대표 박진수) 여수공장과 한화(대표 김승연) 여수사업장이 여수시 인구늘리기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여수시는 자발적으로 여수시민되기 운동 등을 통해 여수 인구증대에 기여한 LG화학 여수공장 유재준 주재임원과 한화 여수사업장 박선규 사업장장에게 2월1일 감사패를 수여했다.

LG화학은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주소지를 여수로 이전하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여수시민되기 운동을 벌여 136명이 여수시로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독려했다.

한화 여수사업장도 2010년부터 지역인재 채용과 주민등록 이전 권장 등을 통해 모두 199명이 여수시민이 되도록 기여했다.

<화학저널 2013/02/01>